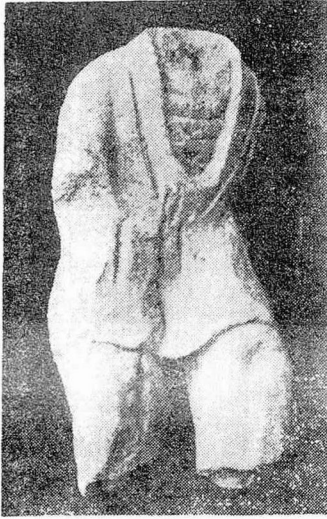


③ 「淸風寺址라 稱하며 瓦片과 石筵이 남아 있다. 路上에 一基가 있 으며 花崗岩四角五層塔으로 高三尺 完全淸風寺의 入口에 세 워진 것이라 稱한다」(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二一頁參照)。

扶餘 臨江寺址 發掘 參加記

申 榮 勳

扶餘로부터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기 시오리(十五里) 長瑕里가 건너보이는 江景가는 길목에 戲魚峽(?)라는 큰 마을이 있다. 이 마을 을 지나 아주 조금만 배를 저으면 百濟때 절이 있었다는 臨江部落(扶餘 郡石城面縣北里)나루터에 도착하게 된다. 지금 이 마을은 李氏때 魏집 과 金氏내 아랫집뿐이지만 百濟때 盛時에는 交通의 要地로 절과 집이 들 어차 있었을 것이고 高麗나 李朝때에는 지금도 마을에서 부르는 院이라 도 있었음직 하다. 어쩌면 百濟때에는 임금님의 御駕가 절에 머물기도 하였을 것이고 그를 위한 어떠한 시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. 이 마을의 형세는 國師峯을 背景으로하고 龍頭峯과 그 맞은쪽 丘陵이 左右를 가리 병풍 두르듯하였고 앞으로는 탁트인 강변이 展開되어 白馬江流域의 景 觀으로서는 이만한 곳도 쉽지 않을 만한 곳이다. 뒤로는 산이 가리고 앞



으로는 강에 막혀 판 국은 비교적 협소한 편이지만 가만히 살 피보면 그리 만만찬 케 넘어 원터라고 불 리우는 지대와 방터 라고 부르는 지대가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다. 잘라 말하자

면 커다란 절을 세우기에 충분한 곳이다. 이상과 같은 여건이므로 절을 세우려면 반드시 西南向하여야 되는데 이것도 이 지대가 갖는 특수한 조 건이다. 한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한다면 국면이 협소하므로 산기슭에 바짝 터를 잡아야 되고 삼면의 산이 내놓는 물을 잘 처리하여야 되겠다. 지난 十月二十五일부터 十一月四日까지 東國大博物館主管으로 이 절 터의 發掘調査가 진행되었다. 원터를 중심으로 하되 建物址로 보이는 礎 石에 遺存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調査하였다.

發掘이 進行됨에 따라 建物은 正面五間 側面四間의 法堂이었음이 밝혀 졌다. 땅속에 가만히 있었어야 될 建物基礎의 構造物들은 어느새 人爲 的인 除去와 攪亂으로 混亂되어 大部分체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多 幸히 一部에 原形이 남아 있어 全貌를 살피는데 도움이 되었다.

豫想하였던데로 地下水處理에 設計者가 苦悶하였던 흔적이 보이고 礎 石을 定置함에도 普遍的인 아닌 手法를 使用하였다. 百濟建物遺址의 礎 石配置의 類例가 許多하지 못하여 確言할 수는 없지만 이 臨江寺址의 礎 石은 扶餘地方에서는 唯一한 例라고 하여도 좋겠다. 이러한 礎石이 곧 益山彌勒寺址法堂礎石과 聯關되는지는 여기서 論外할 일이지만 같은 類 形의 새로운 資料가 增施되어 知見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만은 밝혀두고 싶다. 위에서 礎石의 樣式이라던가에는 觸手하지 않았는데 이는 建物の 復原值、礎石等 構造의 樣式、使用尺의 確認、建物の 用途 他建物の 關係、出土遺物 등과 더불어 報告書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. 發掘調査는 黃壽永教授指揮下에 東大博의 曹永祿氏 同大學史學科 佛 敎科學生들 그리고 扶餘博의 洪思俊氏와 鄭明鎬、筆者 등에 의하여 진행 되었다.

以上으로 發掘調査中에 느낀것을 所見대로 적어둔다(사진은 現地出土 塑佛)